

하계 전훈 유치 256억 대박

7~9월 5만명 전남 방문 전년보다 두배

청정자연·다양한 먹거리...마케팅 '효과'

전남도가 동계 전지훈련지에 이어 하계 전지훈련지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유치 실적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남을 찾은 하계 전지훈련팀은 2283팀에 5만3000명(연인원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1팀, 2만3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선수 및 임원, 학부모 등이 지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유

치 노력과 다양한 먹거리, 천혜의 자연조건 등 전남만의 장점을 살린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여수, 순천, 강진 등 단체장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스포츠 기반시설이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이 많이 늘었다. 목포·강진의 경우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전지훈련팀도 다수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상위 유치지역은 여수, 강진, 구례, 영광, 순천 순이었고 이들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전지훈련팀의 71%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태권도 순으로 이들 상위 3개 종목이 전체 종목의 46%나 됐다.

지역별로는 국가대표상비군 등 전국팀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지역의 50%(2만7000명)였고 전라·제주권, 경상권 순으로 방문했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전지훈련 유치가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역민의 친절의식 제고, 편리하고 저렴한 숙식제공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이번 하계 전지훈련 성과를 기반으로 올 겨울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결실의 들녘 전형적인 가을 날씨속에 추수작업으로 농촌들녘이 부추한 가운데 21일 강진군 작전면 들녘이 바빠 오가는 콤바인 소리로 요란하다. (강진군 제공)

LED광 이용 버섯재배, 에너지 90% 절감

장흥군 시범사업 호평

장흥군은 버섯 품질향상과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버섯 LED광 시범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중인 LED광 이용 버섯재배는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9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버섯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에서 느타리버섯 재배 양이 불균일하고 색깔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해결돼 기존 재배 방법에 비해 상품성이 뛰어나고 수확량도 20% 이상 늘면서 기존 상품보다 박스 당(2kg) 2000~3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가중인 박승현씨 농가는 "6월부터 병느타리를 재배한 결과 버섯 색과 품질이 균일하고 후기 발육도 양호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강일성 소장은 "버섯 LED이용 시범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해 버섯농가의 새로운 재배 기술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축제의 '전남'

10월 25~27일 전남민속예술축제



전남도민의 전통 민속예술 잔치인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25일부터 3일간 나주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농악 18개팀, 민요 5개팀, 민속놀이 13개팀 등 모두 36개팀 1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축제 한마당으로 열기 위해 나주의 대표 관광명소인 '나주목사 내아'와 '곰탕거리'가 자리한 금남동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남민속예술축제는 지난 1966년 남도문화제를 이름으로 시작한 이후 도내 향토민속의 발굴과 전승에 기여했다.

25일엔 완도군 '청해진 열두군고 진법놀이' 등 일부 시군 8개팀이 경연을 펼치며 26일엔 곡성군 '오지리마을 대보름 사대문 지신밧기놀이' 등 일부 8개팀과 청소년부 7개 시군이, 27일엔 청소년부 '함평천지농악'을 포함한 8개 시군 출연팀이 실력을 뽐낸다.

나주시는 축제 기간 각종 편의시설과 특산품코너 등을 운영하는 등 참석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214명 경연 '보성소리축제' 성료



전통예술 인재 발굴과 관소리의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1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0일 폐막했다.

보성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국 관소리·고수 경연대회에 214명이 참여, 밤 늦은 시간까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에는 김명숙(여·36)씨가 선정돼 트로피와 시상금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고수 경연대회 명교부 대상에는 김준영씨가,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정윤형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전국 최대 해안 방재림 조성

도, 23ha 37억원 확보...타당성 평가 실시

전남도는 내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23ha의 해안 방재림 조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내년 사업비로 37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대 규모인 해안 방재림 23ha, 해안 침식 방지 4.5km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해안방사사업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해안 방재림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래 날림, 해일, 풍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과 연결한 지역에 조성하는 숲이다. 지진 해일이 폭 60m의 방재림을 통과할 경우 속도의 70%, 힘의 90%가 줄어드는 등 지진 해일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신안 자은면 백산리 4.5ha, 자은면 한운리 2.2ha, 완도 금

일면 송송리 1ha 등 총 4개 시군 16ha의 해안 방재림을 조성했다.

전남도의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도내 212ha에 방재림 조성이 필요하고 해안 침식 방지 대상지도 49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해안선이 길고 가장 아름다운 전남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해안 방재림과 해안 침식 방지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도 금일 해안 방재림, 무안 해제 해안 침식 방지사업, 신안 자은 해안 방재림이 전국산림생태복원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의 재해 예방 및 복원사업 효과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남아도 반한 나주배

나주배테마파크 체험행사 국내외 500여명 성황

나주배 체험행사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관광객까지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치뤄졌다.

나주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왕곡면 나주배테마파크에서 열린 나주배 체험행사에 국내외에서 5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 여행객 30여명과 서울 양정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및 가족들이 참여해 나주배 따기를 비롯해 시식, 웨이크 만들기 등 나주배 생애와 배 음식 만들기 체험을 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나주가 국내외 여행사와 연계해 나주배 소비처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행객에게 나주배에 대한 특별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kwangju.co.kr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인 영강지역 아동센터와 이화영아원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했다.

나주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임직원들이 참여해 나주시의 주요 산업인 배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행사 참가자들의 80% 이상은 '나주배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느껴보는 게 기가 됐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고품질의 나주배 체험을 위해 나주배 전문체험지도사 양성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kwangju.co.kr

영암도기박물관 29일부터 분청사기 특별전

영암도기박물관이 29일부터 두 달간 '분청,백색의 분을 바르다'란 주제로 분청사기 특별전을 연다.

특별전은 광주·전남의 분청사기 요지 가운데 사적으로 지정된 광주 충효동 요지(사적 제141호)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사적 제519

호)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초빙, 분청의 조형성과 색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된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분청사기 작가인 김락경, 이은석, 이한윤, 송정기, 정이석 등이 참여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동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동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